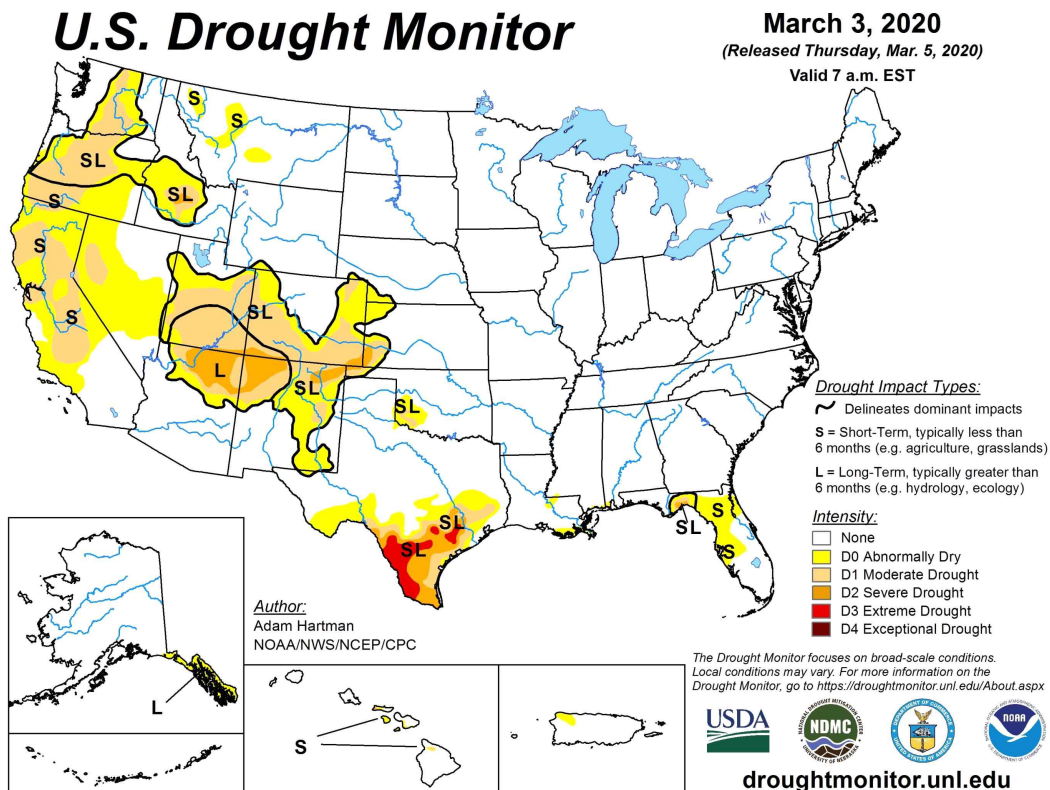


3월 10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(Volume 107, No. 10)

□ 미국 기후 현황(3/1~3/7)

남부를 가로질러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폭풍 전선이 3월 2~3일에 테네시 중심부에서 치명적인 토네이도를 발생시키는 등 극심한 날씨를 일으켰다. 이 폭풍은 폭우를 내리기도 했는데 텍사스 중앙에서부터 조지아와 사우스 캐롤라이나까지 내린 강우 총량은 2~4인치 이상이였다. 한편, 북부를 가로지르는 교란은 지난 주중 말기에, 북동부에 비와 눈 소나기가 내리는데 영향을 주었다. 대서양 서부 상공에서는 북부의 교란과 남부의 폭풍이 합쳐져서 미국 동부를 가로질러 남쪽으로 차가운 공기를 끌어들이는데 도움을 주었다. 그 결과, 지난 주에는 캐롤리나와 조지아 북부와 남부처럼 먼 남쪽에서도 기온이 32° F 이하로 떨어지는 바람에 남동부의 생산자들은 과수와 기타 민감한 작물들의 개화를 모니터링했다. 소나기 날씨가 잠시 북쪽으로 오하이오 계곡과 오대호 아래 지역까지 뻗어갔지만 온화하고 건조한 날씨가 나머지 옥수수 벨트 지역을 덮었다. 더 서쪽은, 주중 늦게 내린 강수가 북서부를 축축하게 만들었는데 남쪽으로 캘리포니아 일부에까지 확대되었다. 그러나 캘리포니아에 내린 강수는 양이 적어서 단기 가뭄을 거의 해소하지 못했다. 며칠 동안, 특히 평원 북부와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5~15° F 높았던 중서부 위쪽을 가로질러 봄과 같은 따뜻함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. 평년 기온 근처 또는 평년 이하의 포켓은 대체로 로키산맥, 남동부, 태평양 북서부로 제한되었다.



### □ 세계 기후 현황(3/1-3/7)

■ 유럽: 북유럽에서는 젖는 날씨가 계속되면서 이전에 건조했던 남부 재배 지역으로 확장되었다. 연달아 계속되고 있는 대서양 폭풍이 대륙의 중부와 북부에 5-50 mm의 비와 고지대 눈을 내렸고 프랑스에서는 폭우 (25-85 mm)가 보고되었다. 밀과 유채의 주요 재배지에서 겨울 작물의 봄 성장에 대한 가뭄 우려는 없다. 프랑스에서부터 폴란드까지 60일 평균 강수량이 평년 대비 100~200% (지역적으로 영국과 북대 인근 지역들에서는 더 많이)였기 때문이다. 스페인은 매우 가변적이지만 광범위하게 내린 소나기 덕분에 단기 가뭄이 완화되었고, 영양 성장 중인 밀과 보리에겐 전반적으로 양호한 조건이 유지되었다. 마찬가지로 비슷한 양의 비가 이탈리아에서는 평년 겨울보다 건조한 날씨 (평년의 50% 미만)로 인해 생겼던 가뭄 우려를 완화시켰으나, 남부는 비가 조금 더 내리면 좋을 것이다. 최근 비정상적으로 올라가서 따뜻해진 날씨가 다소 누그러져서 이 기간 동안 평균 기온은 북서부에서는 평년 부근이었고 스페인과 독일에서는 평년보다 최고 3° C 높았다. 그러나 가장 동쪽에 위치한 재배 지역에 머물고 있는 비정상적인 온기 (평년보다 최대 7° C 이상)가 평균보다 최대 한 달 일찍, 계속 서둘러 겨울 작물들을 휴면에서 깨우고 있었다.

■ 호주: 몇 주 동안 유익한 비가 내린 후에 퀸즐랜드 남부에서는 약간 더 건조한 날씨로 건조 포켓들이 퍼졌다. 지역적으로 가볍게 내린 소나기들 (5 mm 미만)이 가뭄에 피해를 입은 여름 작물들의 성숙과 수확을 촉진했지만 나중에 심은 수수의 성장을 장려하고 그 지역이 심각한 장기 가뭄에서 더욱 회복하도록 도우려면 더 많은 비가 오는 것이 좋을 것이다. 가뭄에 시달린 동부 호주의 다른 곳에서는 적시는 비 (25~75 mm, 지역적으로 더 많이)가 겨울 작물 파종에 앞서서 수분 공급을 더욱더 많이 증가시켰다. 퀸즐랜드 중부에서는 정상적으로 4월 중순에 파종이 시작되고 더 먼 남쪽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5월을 지나면서 파종에 추진력을 얻는다. 호주 동부 지역에서 평균 기온은 평년 수준이어서 주간 최고 기온이 일반적으로 섭씨 높은 20도대에서 중간 30도대까지의 범위에 있었다.

■ 아르헨티나: 모든 주요 농업 지역에서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가 지배적이어서 종실 비대 중인 여름작물들이 성숙할 때까지의 빠른 발달을 촉진하였지만 나중에 파종된 옥수수에게 필요한 수분은 더욱 줄었다. 먼 북부와 남부에 내린 몇 건의 소나기 (5~15 mm)를 제외하면 비가 기록되지 않았다. 대부분의 지역에서 계절을 벗어난 온기가 건조를 동반하여 낮 최고 기온이 지역적으로 35° C를 초과했던 라 팜파, 부에노스아이레스, 코르도바 남부에서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4° C 이상이었다.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3월 5일 기준, 해바라기는 36% 수확되었다. 이 수치는,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야외 작업이 마지막으로 시작하면서 (작년의 12% 대비 4% 수확됨) 작년 추세보다 10% 지체된 것이다. 주간 보고서도 생식기-종실 비대기에 있는 옥수수와 콩이 대체로 좋은 상태에 있었지만 추가 수분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안했다.



■ 브라질: 브라질 중부와 북동부의 넓은 지역에서 유익한 소나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두 번째 작물 옥수수과 면화를 위한 수분을 증가시키고 있었다. 마토 그로소 북부에서부터 남동쪽으로 미나스 게라이스를 지나고, 북쪽으로 마란하오와 피아우이까지 내린 강우 총량은 10~50 mm (지역적으로 100 mm 초과) 였는데 바히아 서부에 있는 주요 생산 지역도 포함되어 있었다.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3월 6일 기준으로 마토 그로소의 콩은 91% 수확되었고 옥수수 과종은 98 % 완료되었다. 대조적으로 대체로 건조하면서 때때로 따뜻한 날씨가 마토 그로소 도 술에서 남쪽으로 리오 그란데 도 술을 지나 뻗어 있는 대부분의 농업 지역을 지배했다. 전통적으로 서늘한 동부 지역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낮 최고 기온이 섭씨 낮은 30 도대에 도달했다. 건조하면서 때때로 따뜻한 날씨가 야외 작업을 하기에는 유리했지만 두 번째 작물 옥수수와 나중에 발달하는 주요 계절 밭 작물들에게 필요한 수분을 줄이고 있었다.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3월 2일 기준으로 첫 번째 작물 옥수수와 콩이 각각 45%, 54% 수확되었다. 또한, 두 번째 작물 옥수수는 72% 과종되었는데 대부분이 영양성장 단계에 있었다.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는 3월 5일 기준으로 옥수수가 53% 수확되었으며 나머지 작물 대부분은 종실비대기-성숙기에 있었다. 한편, 콩은 4% 수확되었고 작물의 상당 부분 (71%) 이 여전히 개화기-종실비대기에 있었다.